

# 2022년 6월 첫째 주 케어 모임

1) 기도로 시작합니다.

2)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. (히브리서 3:1-6)

- 1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,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,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.
- 2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,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.
- 3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,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.
- 4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.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.
- 5 모세는,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,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.
- 6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이로서,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.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,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.

2022 봄 말씀잔치

**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**

질문 1) “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.”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? 내 삶에서(가정에서, 직장에서) 연결해야 하는 다리는 무엇입니까?

질문 2) “우리의 소명은 격려를 통해 고난 당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.” 내가 지나온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? 그 하나님은 같은 고난을 당하는 형제에게, 자매에게 나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어하십니까?

3) 기도제목을 나누고 마무리 기도로 마칩니다.